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영화과 1차

글 쓰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1. (60점)

예술 작품의 '상업성'과 '순수성'이라는 개념은 종종 함께 언급된다.

1-1.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 작품의 '상업성'과 '순수성'의 개념을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이내)

1-2. '상업성'과 '순수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600자 이내)

※ 위 문제에서 기술한 예술 작품은 모든 예술 장르를 통칭한다.

2.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시오. (40점)

Cubism,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rt movements of the 20th century, fundamentally altered how artists and audiences perceive and represent reality. Initiated by Pablo Picasso and Georges Braque in the early 1900s, Cubism challenged the conventions of linear perspective and realistic portrayal that had dominated Western art for centuries. Unlike earlier movements, which focused on accurate and singular depictions of objects and scenes, Cubism fragmented and reconstructed forms to portray multiple perspectives at once, aiming to present objects as if viewed from different angles simultaneously.

At the heart of Cubism was the desire to capture the essence of objects rather than their superficial appearance.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two primary phases within Cubism: Analytic and Synthetic. Analytic Cubism, which dominated the early years of the movement, involved a meticulous deconstruction of objects into basic geometric shapes. Artists would break down objects like guitars, bottles, and human faces into facets, presenting them from several angles in the same work. This phase of Cubism maintained a muted color palette, focusing more on form than on color, which allowed viewers to concentrate on the complexities of perspective and structure.

The later phase, known as Synthetic Cubism, emerged around 1912 and introduced a new approach. Rather than simply deconstructing objects, artists began to reconstruct or "synthesize" them. In Synthetic Cubism, artists often used bright colors and incorporated found objects such as newspaper clippings, fabric, and other materials into their compositions. This technique, known as collage, allowed Cubists to challenge traditional boundaries of painting by integrating elements from the real world. This not only expanded the possibilities for expression but also made a statement about the evolving role of art as a reflection of contemporary society.

Cubism's impact went beyond the realm of painting. Its influence permeated other forms of art, including sculpture, literature, and even architecture. The movement's emphasis on abstraction and multiplicity of perspectives inspired writers, architects, and designers to break from linearity and embrace more fragmented, innovative approaches. In literature, for example, authors like Gertrude Stein experimented with fragmented and disjointed language, mirroring the Cubist style. In architecture, the movemen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ist structures characterized by geometric forms and abstract designs.

Ultimately, Cubism paved the way for other modern art movements, including Futurism, Constructivism, and Surrealism. By questioning the norms of representation and exploring new ways to depict reality, Cubism laid the groundwork for abstraction as a dominant mode in modern art. It opened up endless possibilities for artists to move beyond imitation and into the realms of imagination and conceptual exploration. Through its radical approach, Cubism remain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art to reshape perceptions and redefine the boundaries of creative expression.

2-1. How were objects represented in Cubism?
(100자 이내로 한글로 답하시오.)

2-2. How did Synthetic Cubism differ from Analytic Cubism?
(100자 이내로 한글로 답하시오.)

2-3. What are the impacts of Cubism?
(200자 이내로 한글로 답하시오.)

문제 끝.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영화과 2차시험

이야기 구성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문제1. 아래 조건을 바탕으로 완결된 이야기를 구성하시오. (80점)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1,5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영화의 주요 공간은 바다를 끼고 있는 소도시이다.

영화는 한 마을에서 발생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인물 A는 위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진실을 알고 있지만 감추고 있다.

주요 인물 B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인물이다.

이야기는 일주일 이내에 종결된다.

※ 제목을 맨 위에 적을 것
※ 인물의 이름은 반드시 A, B와 같이 알파벳으로 표기할 것

문제2. 문제1에서 작성한 이야기를 시각화할 때 가장 중요한 쇼트(shot) 2개를 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2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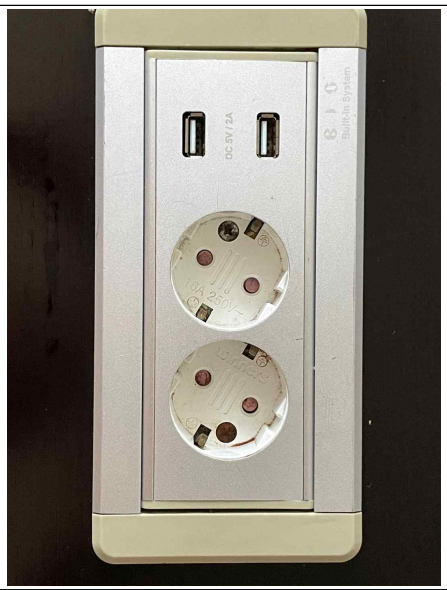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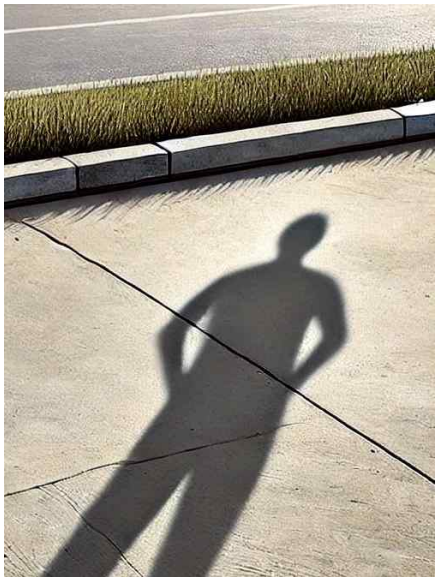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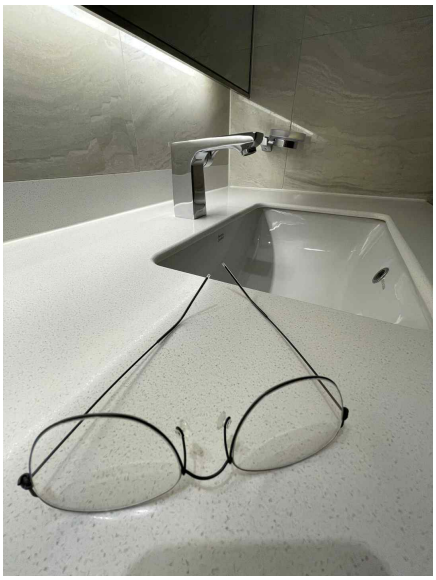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영화과 특별전형(외국어성적우수자, 영상예술특기자)

이야기 구성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이미지를 해석하여 이야기 구성하기>

<문제1> 주어진 각각의 이미지를 해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하시오.
(4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문제2> 1번에서 답한 각각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시오.
(1,2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조건1) 세 가지 해석이 모두 들어가도록 할 것. 단 사진의 순서는 상관 없음.

조건2) 등장인물의 이름은 반드시 A,B,C... 등 알파벳으로 표기할 것.

조건3) 현재 시점의 이야기로 작성할 것.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1차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나치의 유대인 학살, 보스니아의 인종청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등, 인간은 전쟁, 침략 행위를 통해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조건>
1. 작품의 형식은 자유이며 분량은 5쪽 이상.
2. 작품과 별도로 반드시 1쪽은 구성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시오.
3. 본인의 이름, 출신학교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표기 시 불합격 처리됨.

<평가 기준>
스토리 구성, 주제와의 적합성, 조형성 그리고 글쓰기를 중점으로 평가함.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2차 시험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1. 자신이 속해 있는 세대를 잘 드러내며,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2인 이상의 캐릭터를 만드시오.

2. 위 캐릭터들로 이 세대의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갈등 상황을 만들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3. 뒷장에는 자신이 구상한 캐릭터, 상황 설정, 스토리 콘셉트를 글로 쓰시오. (500자 이상)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특별전형(3D 특기자)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문제 >

기후 위기가 극복된 근미래를 상정하고 어떻게 극복했을지 상상하여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뒷장에는 기획 의도와 본인이 구상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전체 500자 내외)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 1차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다음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소설 '변신(Metamorphosis)'의 한 부분이다. 주어진 소리와 글이 묘사하는 장면을 그리시오. 단, 벌레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소리를 반드시 반영하시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Gregor Samsa)는 불길한 꿈에서 깨어난 뒤, 자신이 한 마리의 크고 끔찍한 벌레로 둔갑해 있는 것을 침대 속에서 발견했다. 그의 등은 매우 딱딱한 갑피로 덮여 있었고, 아래로는 활처럼 불룩한 거북등 무늬의 배가 보였다. 블룩한 배 위에는 이불이 간신히 덮여 있었는데, 곧 미끄러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한 그는 기가 막혔다. 굵직한 두 다리가 있던 자리에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건 정말 꿈이 아니었다. 그의 방은 좀 비좁은 듯했지만, 그에게 익숙한 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따로따로 묶은 옷감의 견본이 흩어져 있었고 -잠자는 외판사원이었다- 책상 위의 벽에는 번쩍거리는 금색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액자 속에는 어느 잡지 화보에서 오려 낸 여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털모자와 털목도리로 잔뜩 멋을 부린 여자가 꼿꼿이 앉은 채로 두 팔을 덮고 있는 털토시를 보는 사람의 눈앞에 쳐들어 보이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날씨는 회색 빛을 띠고 있어서인지 왠지 음산해 보였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게다가 날씨마저 가라 앉아서 기분까지 한껏 우울해지는 듯했다.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 2차 시험

글 쓰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문) 동감(同感, Sympathy)과 공감(共感, Empathy)의 의미와 차이를 설명하고, 적절한 사례를 각각 제시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 2차 시험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문) 음악을 듣고, 주어진 이미지의 여백을 채워 그림을 완성하시오. (단, 주어진 이미지는 그대로 그림에 포함되어야 함.)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방송영상과 2차 시험

논 술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1. 다음 문장은 미국 작가이자 비평가인 수잔 손택(Susan Sontag)이 '지혜의 프로젝트(The Wisdom Project)'라는 에세이에 적은 것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All writing is a species of remembering. The recovery of memory is an ethical obligation: the obligation to persist in the effort to apprehend the truth.

1) 두 문장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겨 적으시오.
2) 손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풀이하시오.

2. 다음은 일본계 미국인 법학자 켄지 요시노의 저서 <커버링>의 일부이다. 요시노가 본문에서 언급하는 '패싱'과 '커버링'의 문제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두 개념을 활용해 이야기를 구성해 보시오. (25점)

"게이 정체성에 도달하기까지 나는 3단계의 고투를 거쳤다. 이것은 동성애자 친구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목격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나는 이성애자가 되려고 애썼다.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 나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것을 '전환(conversion)'의 욕구라고 부르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나는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빌에게 그의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던 무렵에는 더 이상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친구들에게는 나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이것을 '패싱(passing)'의 욕구라고 부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벽장에서 나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동성애자를 주제로 글을 쓰거나 공개적으로 동성과 애정 표현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나의 성적 지향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패싱과는 달랐다. 왜냐하면 동료들은 내가 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나의 게이다움을 자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 후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의 저서 <스티그마(Stigma)>에서 내가 찾던 단어를 발견했다. 1963년 출간된 이 책에서는 장애인, 노인, 비만인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손상된' 정체성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고프먼은 패싱에 대해 논의한 후 "자신에게 찍혀 있는 낙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인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프먼은 이러한 행동을 '커버링(covering)'이라고 명명했다. 고프먼은 패싱은 개인적 특성의 가시성과 관련되는 반면, 커버링은 두드러짐과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패싱과 커버링을 구분했다. 고프먼은 커버링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보좌관들이 회의를 하러 오기 전에 왜 항상 테이블 뒤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되었는지와 연관시켜 이야기했다. 누구나 루스벨트가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패싱을 한 것은 아니었다. 루스벨트는 커버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보이게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탁월함에 집중하게 만든 것이다.

…

모든 민권 집단이 커버링 요구로 상처받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처럼 입고' '뒷골목 비속어'를 쓰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아시아에서 온 티'를 내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여성에게는 직장에서 '남자처럼 행동'하고, 육아에 대한 책임감을 숨기라고 한다. 유대인에게는 '너무 유대인처럼' 보이지 말라고 한다. 무슬림에게는, 특히 9.11 이후 베일을 사용하지 말고, 아랍어를 쓰지 말라고 한다. 장애인들은 활동을 보조하는 장비를 숨기라는 말을 듣는다…차별은 소수자인 사람이 아니라 소수자의 문화를 표적으로 한다. 외부자들은 내부자들처럼 행동할 때만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커버링할 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커버링> p38~p45 발췌

3. 영상은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결국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인물, 사건, 갈등 등의 기본 요소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갈등'은 창작자가 그것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물과 사건의 진행과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그리고 이를 '인물'과 '사건'이 포함된 다큐멘터리 혹은 드라마 기획안으로 작성하시오. (25점)

4. 아래 사진은 당신이 영상원 방송영상과 예술사 진학을 위해 논술시험을 치르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밤 풍경이다. 당신에게 2024년 12월 바로 지금 이 예술학교에 관해 글쓰기를 하라는 스토리텔링 미션이 주어진다. 현실 관찰과 실재 맥락을 바탕으로 화자-저자의 생각과 느낌, 희망 등을 추가해 하나의 리얼리티를 그려내는 내러티브 서사 창작의 작업이다. 당연하게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과 감각, 문체와 스타일, 의미와 재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목을 뽑고 그 아래에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 보라. 형식은 에세이, 소설 등 어떠한 것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25점)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영상이론과 2차 시험

논 술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문제 1. <베스터보르크 수용소>(2007)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40점)

[질문 1]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무성으로 제작되었다. 영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시오.

[질문 2] 이 영화는 이미 촬영된 영상을 재조합하여 만든 파운드푸티지 다큐멘터리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 영화의 역사기술 방식을 논하시오.

[질문 3] 이 영화와 형식적 혹은 내용적으로 유사한 영화 한 편을 골라 비교분석하시오.

문제 2. 아래의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30점)

<지문 1>

What has come to be called the 'cultural turn' in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especially in cultural studies and the sociology of culture, has tend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eaning to the definition of culture. Culture, it is argued, is not so much a set of things – novels and paintings or TV programmes and comics as a process, a set of practices. Primarily, culture is concerned with the production and the exchange of meanings – the 'giving and taking of meaning' – between the members of a society or group. To say that two people belong to the same culture is to say that they interpret the world in roughly the same ways and can express themselve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about the world, in ways which will be understood by each other. Thus culture depends on its participants interpreting meaningfully what is happening around them, and 'making sense' of the world, in broadly similar ways.

This focus on 'shared meanings' may sometimes make culture sound too unitary and too cognitive. In any culture, there is always a great diversity of meanings about any topic, and more than one way of interpreting or representing it. Also, culture is about feelings, attachments and emotions as well as concepts and ideas. The expression on my face 'says something' about who I am [identity) and what I am feeling (emotions) and what group I feel I belong to (attachment), which can be 'read' and understood by other people, even if I didn't intend deliberately to communicate anything as formal as 'a message', and even if the other person couldn't give a very logical account of how s/he came to understand what I was 'saying'. Above all, cultural meanings are not only 'in the head'. They organize and regulate social practices, influence our conduct and consequently have real, practical effects.

The emphasis on cultural practices is important. It is participants in a culture who give meaning to people, objects and events. Things 'in themselves' rarely if ever have any one, single, fixed and unchanging meaning. Even something as obvious as a stone can be a stone, a boundary marker or a piece of sculpture, depending on what it means – that is, within a certain context of use, within what the philosophers call different 'language games' (i.e. the language of boundaries, the language of sculpture, and so on). It is by our use of things, and what we say, think and feel about them – how we represent them – that we give them a meaning. In part, we give objects, people and events meaning by the frameworks of interpretation which we bring to them. In part, we give things meaning by how we use them, or integrate them into our everyday practices.

<지문 2>

Members of the same culture must share sets of concepts, images and ideas which enable them to think and feel about the world, and thus to interpret the world, in roughly similar ways. They must share, broadly speaking, the same 'cultural codes'. In this sense, thinking and feeling are themselves 'systems of representation', in which our concepts, images and emotions 'stand for' or represent, in our mental life, things which are or may be 'out there' in the world. Similarly, in order to communicate these meanings to other people, the participants to any meaningful exchange must also be able to use the same linguistic codes – they must, in a very broad sense, 'speak the same language'.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must all, literally, speak German or French or Chinese. Nor does it mean that they understand perfectly what anyone who speaks the same language is saying. We mean 'language' here in a much wider sense. Our partners must speak enough of the same language to be able to 'translate' what 'you' say into what 'I' understand, and vice versa. They must also be able to read visual images in roughly similar ways. They must be familiar with broadly the same ways of producing sounds to make what they would both recognize as 'music'. They must all interpret body language and facial expressions in broadly similar ways. And they must know how to translate their feelings and ideas into these various languages. Meaning is a dialogue – always only partially understood, always an unequal exchange.

Why do we refer to all these different ways of producing and communicating meaning as 'languages' or as 'working like languages' ? How do languages work? The simple answer is that languages work through representation. They are 'systems of representation'. Essentially, we can say that all these practices 'work like languages', not because they are all written or spoken (they are not). but because they all use some element to stand for or represent what we want to say, to express or communicate a thought, concept, idea or feeling. Spoken language uses sounds, written language uses words, musical language uses notes on a scale, the 'language of the body' uses physical gesture, the fashion industry uses items of clothing, the language of facial expression uses ways of arranging one's features, television uses digitally or electronically produced dots on a screen, traffic lights use red, green and amber – to 'say something'. **(가)** **These elements – sounds, words, notes, gestures, expressions, clothes – are part of our natural and material world; but their importance for language is not what they are but what they do, their function. They construct meaning and transmit it. They signify. They don't have any clear meaning in themselves. Rather, they are the vehicles or media which carry meaning because they operate as symbols, which stand for or represent (i.e. symbolize) the meanings we wish to communicate. To use another metaphor, they function as signs. Signs stand for or represent our concepts, ideas and feelings in such a way as to enable others to 'read', decode or interpret their meaning in roughly the same way that we do.**

So it is through culture and language in this sense that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meaning takes place. The conventional view used to be that 'things' exist in the material and natural world; that their material or natural characteristics are what determines or constitutes them; and that they have a perfectly clear meaning, outside of how they are represented. Representation, in this view, is a process of secondary importance, which enters into the field only after things have been fully formed and their meaning constituted. **(나)** **But since the 'cultural turn' in the human and social sciences, meaning is thought to be produced – constructed – rather than simply 'found'. Consequently, in what has come to be called a 'social constructionist approach', representation is conceived as entering into the very constitution of things; and thus culture is conceptualized as a primary or 'constitutive' process, as important as the economic or material 'base' in shaping social subjects and historical events – not merely a reflection of the world after the event.**

[질문 1] <지문 1>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시오.

[질문 2] <지문 2> 중 밑줄 친 (가), (나)를 각각 국문으로 번역하시오.

*transmit: 전송하다

문제 3. 다음의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30점)

<지문1> 발터 벤야민,『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중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이제까지의 온갖 관례적 태도가 현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모체는 대중이다. 양이 질로 전화한 것이다. 즉 **예술에 참여하는 대중의 대폭적인 증대가 참여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대중의 이러한 참여가 당장은 악평을 불러오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관찰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 사실 사태의 표면적인 측면에만 주의를 기울여온 사람들이 없지 않다. 그중에서도 뒤아멜은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극단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그가 영화에 대해 무엇보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영화가 불러일으키는 대중 참여의 방식이다. 뒤아멜은 영화를 가리켜 '노예를 위한 심심풀이'라고 부른다. . . . 이것은 결국 정신집중을 요구하는 예술에 대해, 대중은 [정신을 분산시키는] 기분전환밖에 구하지 않는다는 옛날 그대로의 탄식일 뿐이다. 이것이 그들의 상투어인 셈이다. 다만 이 상투어 속에서 과연 영화를 해명하기 위한 견실한 입장이 제출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우리로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더 면밀한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정신의] 분산과 집중은 확실히 정반대의 것이지만, 이 같은 대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도 좋을 것이다. 예술작품 앞에서 정신을 집중하는 사람은 작품 속으로 자신을 침잠시킨다. 즉 그는, 마치 완성된 자기 작품을 보다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전설상의 중국의 한 화가처럼, 작품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이에 반해 정신을 분산시킨 대중은 거꾸로 자신들 속으로 예술작품을 침잠시킨다.

. . . 정신을 분산시킨 사람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신을 분산시킨 상태에서 어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과제의 해결이 그에게 습관화되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여기에서, 예술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정신 분산을 단서로 삼는다면, 지각의 새로운 과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개인은 이러한 과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따라서 예술 자체가 그 가장 곤란하고 중대한 과제의 해결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는 특히 예술이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다. 오늘날

예술이 그것을 행하는 곳은 영화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정신 분산적 수용은 통각의 근본적 변화들의 징후로서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점차 주목할 만한 현상이 되고 있지만, 바로 영화야말로 이러한 수용을 숙련화하는 최적의 도구이다**. 영화는 그것이 지닌 쇼크효과의 방식으로 이 [새로운] 수용형식을 받아들이다. [그리하여] 영화는 제의적 가치를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는데, 이는 단지 관객에게 감정인의 태도를 취하게끔 한다는 점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관 내의 이 감정인의 태도가 어떠한 주의집중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정에도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관객은 말하자면 하나의 시험관이되, 정신이 분산된 시험관이다.

<지문2> 조너선 크레리,『지각의 정지: 주의, 스펙터클, 근대문화』(Suspensions of Perception: Attention, Spectacle, and Modern Culture) 중에서

20세기에 나온 근대적 주체성에 대한 비판적·역사적 분석의 상당수는 발터 벤야민 등에 의해 표명된 "주의분산(distraction) 상태 속에서의 수용"이라는 관념에 기초해왔다. 그런 논의에서 도출된 것은 폭넓게 퍼져 있는 다음과 같은 가정인데, 이에 따르면 1800년대 중반 이래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각을 특징짓는 것은 파편화, 충격, 분산이라고 한다. 나는 근대적 주의분산이란 그것이 주의(attention)와 결부된 규범 및 실천들의 등장과 맺고 있는 상호적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 . 어떤 의미에서 주의력은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응된 주체의 중요한 특징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주의력과 위험할 정도로 몰입하거나 전도된 주의를 구분하는 경계는 심히 모호했고 오직 수행적인 규범들을 통해서만 기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주의집중과 주의분산은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연속체로 존재했고, 주의란 점차 대부분이 동의하게 된 것처럼, 불확정적인 일군의 변수들을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되고, 떠오르거나 가라앉고, 사그라들거나 밀려드는 역동적 과정이었다.

. . . 벤야민은 그의 몇몇 작업에서 (충격과 주의분산에 고유한 분열이 새로운 지각 양식의 가능성을 제공함을 시사하면서) 주의분산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대성의 과잉 자극으로 오염되지 않은 몰입적 관조를 또 하나의 항으로 두는 근본적 이중성에 입각해서 그리하고 있다. 건축과 영화를 근대적 "주의분산 상태 속에서의 수용"을 예시하는 두 패러다임으로 본 잘 알려진 논의에서 벤야민은 "주의분산과 주의집중은 서로 상반되는 극을 이룬다"고 선언한다. 나는 이렇게 보는 대신에 주의집중과 주의분산은 부단히 서로를 향해 흘러드는 연속체 바깥에서 사유할 수 없으며, 이 연속체란 동종의 원칙들과 힘들이 서로를 자극하는 사회적 장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바다.

[질문 1] <지문 1>의 저자와 <지문 2>의 저자는 주의(주의집중)와 정신분산(주의분산)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말 ~ 20세기 초 당시 영화와 대중들(관객들)이 맺는 관계를 설명하시오.

[질문 2]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 알고리즘이 지배적인 동시대 영상/시각 문화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주의와 주의분산의 현상을 사례로 들고, 두 저자의 입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시오.